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을 통해 본 회화의 시각적 아이러니(Irony)연구

문지혜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A Study of the Visual Irony of a Painting Using ‘Dépaysement’

Ji-Hye Moon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tudies of Arts,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러니(Irony)’의 특성과 이를 시각화 하는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아이러니’의 수사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미술작품에서 시각효과를 통해 시각언어를 드러내는 방식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아이러니’의 수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술사에서 등장하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데페이즈망’은 여러 가지 혼용된 기법으로 ‘낯설게 하기’의 수사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서로 반대되는 논리를 지닌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성하여 ‘시각적 아이러니’를 구사한다.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이미지들로 상황들을 연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꼬아 이미지와 상황을 모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아이러니’의 특성과 ‘데페이즈망’의 특성은 일치하며, ‘시각적 아이러니’의 분석을 통해 시각언어를 이해한다.

주제어 : 아이러니, 시각언어, 데페이즈망, 시각적 아이러니,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marily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irony' and focus on the process of visualizing it. 'Irony' is one of the rhetorics used to describe the context or situational aspects of writing. This 'Dépaysement' that appears in art history corresponds to 'ironic' rhetoric in writing. 'Dépaysement' is a combination of techniques, which conveys a message through de-familiarizing rhetoric. With the image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n logic on the same canvas. 'Dépaysement' and 'ironic' rhetoric have commonalities in that they produce a situation with opposite or contradictory images and obscure the images and the situation by distorting them into being different from what has usually been known. In conclusion, Ironic Characteristics and Visual technique elements of dépaysement are identical,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visual language by analyzing 'the visual irony' that appears in artworks.

Key Words : Irony, Language of vision, Dépaysement, Visual Irony, Convergence

1. 서론

현대의 미술은 다양한 변화를 통해 관람객에게 공유되고, 누구든지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예술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관람객들은 또 다른 활동을 찾아 활동범위를 넓히고, 함께 공유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관람객이 된다.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점점 기회를 확장하고

*Corresponding Author : Ji-Hye Moon(artmjh822@naver.com)

Received March 18,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April 7,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나아가며 작품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전 시들을 통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관람객이 작품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각적 언어들을 이해하는데 한층 가까워 졌음을 의미한다.

모든 조형예술과 영화, 사진, 시각예술, 시각매체들은 인간이 체험하거나 발견한 모든 경험적 요소들을 시각화한다. 이것들의 구성요소는 시각어(視覺語)로 구성된다. 시각언어(language of vision)는 조지 케페슈(George Kepes)가 집필한 '시각의 언어'(1944)에서 나온 말로 근대적 조형예술의 한 개념으로 이전부터 존재하는 개념이었지만 케페슈에 의해 새로운 규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새로운 조형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시각언어가 의미하는 바를 '시각으로서 직접적인 의사를 소통시키는 언어'[1]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소통의 수단인 말은 시각을 포함하는 모든 소통의 체계들에서 분리될 수가 없고, 시각과 관련된 언어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신호체계들의 이해와 인지를 위하여 언어의 사용을 확대,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지로 한 개념에 대한 소통이 가능하고 어떤 시각언어가 존재하는지 가정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들을 말로 표현해 내는 것처럼 그것들을 시각언어로 시각화 해 낼 수 있다. 미술 작품을 관람 할 때 그 작품 안에 직접적인 단어와 언어가 쓰여 있지 않아도 그림에 사용된 다양한 기법 요소들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시각 언어의 구조적 구성은 모양, 동세, 방향, 지향, 종류, 색, 질감, 무늬, 여백, 규모, 각도, 의도로 이루어진다. 이는 미술작품 속에선 다양한 이미지들의 결합과 기법들을 통해 나타나며 언어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읽어내는 도구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언어들 중 문학이나 여러 예술 분야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는 '아이러니(Irony)'의 특성과 이를 시각화 하는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아이러니'는 글의 문맥이나 여러 상황적 모습들을 묘사할 때 쓰는 기법요소의 단어중 하나이다. 이런 아이러니는 글 자체 뿐만 아니라 상황적 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언어적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법이다.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미술작품에서 시각 효과적 기법을 통해 시각언어를 드러내는 방식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아이러니'의 수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

술사에서 등장하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언어에 수사법이 있다면 시각언어에서는 다양한 기법들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며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기법중 하나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은 여러 가지 혼용된 기법으로 '낯설게 하기'의 수사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사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지 '데페이즈망'을 사용하는 대표작가인 마그리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본문에서 첫 번째, '아이러니'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사를 통해 미적 범주 안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그 범주 안에서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를 알아본다. 두 번째, 미술사에서 그 형식과 유사한 기법으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마그리트 '데페이즈망'의 특성을 수지개블릭의 분류법으로 살펴보고, '시각적 효과'와 '아이러니의 특징'을 비교하여 '시각적 아이러니'의 특성을 도출하고 시각언어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2. 미적 범주로서 아이러니(Irony)

2.1 아이러니의 개념과 변천

일상 속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라는 용어를 우리는 흔히 사용한다.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각기 다른 예술장르 속에서 여러 표현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술의 범주 안에서 활용하는 '아이러니'라는 용어가 미적 범주 내에서 어떻게 등장하여 전개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러니(Iron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언어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어(反語)의 뜻으로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한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결과가 만들어낸 모순이나 부조화를 뜻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역설(逆說)에 상응하여, 전하려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말을 사용하여 효과를 보는 수사법[2]으로 모순, 역설, 이율배반으로 순화한다고 명시한다. 아이러니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면 그리스어의 에이로네이아(eironeia:위장)라는 '숨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반어를 뜻하며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뜻과 반대로 표현될 때 쓰이는 용법을 의미한다. 고대의 희랍극에서 에이런(eiron)과 알라존(alazon)의 두 유형의 인물이 있었는데 알라존은 힘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며 허위적 요소를 가진 영웅적 존재였고, 이에 반해 에

이러한 허약하고 보잘 것 없는 바보스러운 존재였다. 이러한 약한 에이러니가 강한 알라존에게 바보스럽고 순진한 질문을 하며 그 질문을 통해 알라존 스스로 에이러니의 우직함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에이러니는 알라존보다 더 강하고 현명한 존재로 이런 에이러니적 요소를 문학작품에 넣어 사용했을 때 이것을 아이러니(Irony)라고 이름 붙이며 이것은 18C초에 일반화 되었다[3]. 기본적인 의미로 ‘탈출구, 위장, 진지성 결여, 다른 사람을 사로잡거나 조롱하기 위해 꾸미는 무지의 가장’[4]의 뜻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겉의 표면적인 외양과 실제와의 대조” 혹은 “어떤 사물의 표면을 언급하지만 내적으로 다른 의미를 뜻하는 표현기법”으로 정의 내리는 수사법이다. 하지만 일차적인 단순한 표현의 기법에서부터 개인과 세계의 극복 불가능한 간극의 철학적 개념, 그리고 그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의 원리를 뜻하는 개념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들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다[5].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Socrates)¹⁾ 이후부터 슐레겔(Friedrich Schlegel)²⁾ 전까지의 아이러니는 뜻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수사학적인 ‘위장(Verstellung)’의 특성을 갖으며, 낭만주의적 아이러니는 수사학의 단계를 넘어선 미학과 철학의 영역에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유사화(Anerwandlung)’의 특성이 강조되고, 현대의 서사적 아이러니에서 ‘유보(Vorbehalt)’의 특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4].

아이러니란 말이 여러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등장하는데 미학의 범주에서 ‘아이러니’에 관한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낭만주의 시대이다. 낭만주의³⁾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해 반동적으로 일어난 유럽 전역에 펼쳐진 예술로서 유기론적세계관, 감성적인 세계 인식, 관념주의를 중심으로 삼는 근대적 문예사조를 가리켜 말한다[6]. 낭만주의자들은 현실에서 등을 돌리고 미적 세계에 안주하도록 만들며, 모든 희망을 예술 안에서 찾았던 낭만주의 미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근대의 문턱의 낭만주의자들의 중심에 있던 문제는 ‘모든 사회적인 제약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주관의 형성과 그 자유로운 주관의 상호 의사소통이 근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가?’[7]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막연하고 분열된 세계의 낭만주의 시대는 다원적 의미에 대한 불안과 가치에 대한 지속적 변이, 지식의 모순[8]을 안고 있었으며 수사적 범위 내에 머물러 있던 아이러니를 또 다른 의미로 발전시킨다. 낭만주의 미학의 틀을 잡은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그것을 위한 방법적 이론으로 성찰(Reflexion)과 낭만적 아이러니(romantische Ironie)를 제시한다[9]. 낭만주의에서 사용한 아이러니의 근본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에서 가벼움을 이용함으로써, 대립되는 두 개의 관점과 의견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가득 찬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는 일종의 철학적 방식이다. 게다가 아이러니한 태도는 주체가 객체에 아주 밀접하게 접근 가능하며, 혹은 멀어질 가능성도 내포하는 이중적 움직임 가능하게 해준다[10].

근대에 이르러 더욱 확장된 아이러니의 개념은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까지 확장된다.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인식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아이러니의 의미는 확장 되었고 삶 자체를 아이러니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아이러니는 사람들마다 다른 형태로 지닐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11].

2.2 아이러니의 특성과 분류

아이러니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적용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도 존재한다. 언어 속의 단어나 구절을 통해 표현이 가능하며, 하나의 단락 혹은 글 전체 안에서 나타나는다.

구체적인 말로 아이러니가 표현 되거나 정황상의 내용 혹은 글의 문맥 전체에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상황이나 사건 속 발생한 실제와 기대 사이의 대립, 충돌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을 아이러니적 상황으로 분류한다. 이런 아이러니적 분류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려 한다면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소크라테스(BC 470년 ~ BC 399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테네에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교육시켰는데, 플라톤도 그 중의 하나이다.

2) 슐레겔(1772년 ~ 1829년), 독일 낭만파의 문학자. 슐레겔(A.W. Schlegel)의 동생. 예나 대학 강사가 되자 형과 함께 잡지 『아테네움』(Athenäum)을 발간하여 낭만주의 문학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그 후 드레스덴(Dresden), 파리(Paris)에서 문학과 철학을 강의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괴테(J.W. von Goethe), 피히테(J.G. Fichte)의 영향을 받았고 슐라이어마허(F.E.D. Schleiermacher)와 친교가 두터웠다.

3) 낭만주의(romanticism)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유럽 전역과 그 문화권인 남북 아메리카에 전파된 문예사조·예술운동, 정신의 폐허 위에 자신의 심성(心性)에 맞는 문화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 낭만주의 정신의 본질이며, 그 결과 자아(自我)에 대한 확인과 그 내부에로의 침잠(沈潛)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내면에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르겐 슈람케는 아이러니 개념의 복잡성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아이러니의 현상형식은 너무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수사법적 • 구어적아이러니, 낭만적 아이러니, 서사적 아이러니, 에로스적 아이러니, 미학적 구성 요소로서 아이러니, 비극적 아이러니, 초월적 아이러니와 같은 개념들이 그것으로, 여기에는 유희적인 농담과 반어적 웃음, 자기초월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토마스 만의 말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긴장과 모순에 대한 통찰이며 양면성을 갖는 시각이고, 일방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지성적 • 회의적 태도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는 끊임 없이 양지의 모순을 뛰어넘으려하는 초월적 자세를 유지한다. 아이러니는 인간적이며 따뜻한 유머(웃음)와는 뿔수 없는 관계이고, 그와는 달리 거리를 지키며 고수하는 냉정한 웃음, 이지적인 웃음이다.” 루카치는 아이러니를 변증법적 의미로 “마지막 한계에 도달한 주관성의 자기 지양으로서 신이 없는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라고 규정한다[12].”

이처럼 복잡하게 구성되는 아이러니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서로 반대되는 논리의 체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둘째, 상반되는 사물이 갖는 의미충돌에서 발생하는 긴장감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예술적 감각을 창출해내는 힘을 지닌다. 정서적 이질감을 통해 같은 차갑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13].

오늘날 문학 작품에 사용되는 아이러니의 개념을 뮈케(D.C. Muecke)는 크게 둘로 ‘말의 아이러니’, ‘상황의 아이러니’로 분류한다. “말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스트가 아이러니의 상태를 야기시키는 아이러니이며, 상황의 아이러니는 어떤 일의 상태나 사건이 아이러니칼하다고 보여지는 아이러니이다.”라고 언급한다. 이때 아이러니칼하게 되는 양상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황에 따라 아이러니의 기교와 연결되는 ‘비꼼’, 대부분 말의 아이러니로 스스로를 은폐하는 ‘비개성적 아이러니’, 스스로를 덜 지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자기 비하의 아이러니’, 순진한 자를 제시하는 ‘순진의 아이러니’, 스스로 아이러니화 하는 인물을 창조하는 ‘자기 폭로의 아이러니’, 부조화하고 모순되는 이미지를 설명하지 않고 병치하는 ‘순수한 부조화의 아이러니’의 상황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들을 아이러니칼하다고 판단한다.

말의 아이러니는 서술과 풍자, 문체, 수사학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체를 제기하지만 상황의 아이러니는 형식상의 논점대신 역사적이고 관념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뮈케는 이런 상황의 아이러니를 ‘극적 아이러니’와 ‘일반

적 아이러니’, ‘낭만주의 아이러니로’ 제시한다.

‘극적 아이러니’는 극 속의 누군가 실제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상황을 만들 때 발생한다. 이 희생자의 무지를 알고 있을 때 효과는 더욱 더 극적이 된다. ‘일반적 아이러니’의 기초는 인간이 모든 해결 불가능한 모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아이러니와 철학파우주의 아이러니 앞에 인간의 무력을 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낭만주의 아이러니’는 문학이 이미 순진하고 단순 할 수 없는 그 자체에 상반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아이러니이다.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작가의 아이러니인 것이다[11].

아이러니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한 글 자체로서의 내적 변형의 형태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들과 글이 복잡하게 얽힌 구성으로 만들어진 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미적 범주 안에서 발생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 되는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분류 가능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 개념이 미술의 영역으로 적용되어 시각적 효과로 어떻게 구성되고 녹아있는지 초현실주의에 등장하는 ‘데페이즈망’을 통해 연구해 본다.

3. ‘데페이즈망(dépaysement)’과 ‘시각적 아이러니’

3.1 초현실주의와 데페이즈망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슈트레알리즘(surrealism)이라고도 한다. 초현실주의가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구체화 된 시기는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⁴⁾의 ‘슈트레알리즘 선언’⁵⁾ 발표 시

4)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프랑스의 시인. 초현실주의의 주창자이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 꿈·잠·무의식을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발로로 보는 시의 혁신운동을 궤도에 올렸다. “문학”등 기관지 발간, 작품 “나자” 등이 있다.

5) 슈트레알리즘 선언-합리주의를 부정하고, 무의식의 외재화(外在化)에 의한 인간의 해방을 선언하였다. ‘제1선언’에서 브르통은 슈트레알리즘을 “입으로 말하는 것,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 그 밖의 모든 표현 방법으로 사고의 참다운 움직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동기술법(오토마티즘). 이성(理性)에 의한 모든 검열을 배제하고 미학상(美學上)·도덕상의 일체의 선입주(先入主)로부터 떨어져 이루어지는 사고(思考)의 참다운 복사(複寫)”라고 정의하였다. ‘제2선언’에서는 슈트레알리즘과 미술사관을 제창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슈트레알리스트들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기인 1924년부터이다.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말로든 글로든,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유의 실제 작용을 표현 하는 것, 이성에 의한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난 사유의 받아쓰기” 라고 브르통은 정의 내린다. 또한 브르통은 시인 피에르 르베르디(Pierre Reverdy)가 말한 “이미지는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다.

●●● 병치된 두 현실의 관계가 멀고도 정확할수록 이미지는 보다 강렬해질 것이며 정서적으로 더 강한 힘과 시적 현실성을 얻게 될 것이다[20].”는 문장을 인용하여 그림 속에서 시적인 이미지의 효과를 발견했음을 드러낸다.

초현실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은 사고의 움직임이 이성이 통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여 표현한다는 ‘자유연상’에서 유래 한 것이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이 원리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인 기법이 ‘오토마티즘(automatism)’과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이다. 데페이즈망은 오토마티즘과 공통적으로 잠재되어있는 의식을 표현하긴 하지만,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반 논리적이고 모순된 결합적 방식으로 표현한다. 구체적 형상을 변형하여 고정되어있는 의식의 흐름과 구조를 변화 시키는 것이다.

3.2 ‘데페이즈망’의 시각적 특성과 아이러니

‘데페이즈망’은 붙어로 전치(轉置), 전위법으로 번역되고, 낯선 느낌의 의미와 사람을 이상한 환경에 놓는 것, 혹은 정든 나라와 고향을 떠나는 것[15]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일상적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서로의 기이함을 드러내는 기법이다. 이런 효과는 생각지 못했던 기법으로 사람들의 감각기관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잠재된 무의식의 해방과 그 충격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데페이즈망’이라는 말은 문학이론가 빅토르 시클롭스키(Viktor Borisovich Shklovski)⁶⁾에 의해서 ‘낯설게 하기’라는 말로 개념화되었다. 그는 ‘낯설게 하기’ 방식에 의해서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특성이 드러난다고 말하며 이는 각각의 예술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시에서는 일상 언어와는 다른 리듬을 사용하

6) 빅토르 시클롭스키(Viktor Borisovich Shklovski), 1920년대에 세력을 떨쳤던 시어연구회(詩語研究會)인 ‘오포야스’의 중심적 학자로서 문학의 형식적 측면을 연구하여 당시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 이후에 형식주의가 비판을 받게 되면서 한동안 침묵을 지켰으나, 그 후 《도스토옙스키론》(1955) 《레프 톨스토이 평전》(1963) 등을 집필하였다.

거나, 비유와 역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소설에서는 사건 그 자체를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플롯(plot)⁷⁾을 통해 낯설음을 주고 주위를 다시 환기시킨다.

이와 같은 ‘낯설게 하기’ 기법은 역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며 본래의 의미에서의 확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지점은 ‘아이러니’가 추구하는 방식과 같은 맥락으로, 이를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데페이즈망’을 이용하여 시각화해나간다. 서로 반대되는 논리를 지닌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성하여 시각적 아이러니를 구사하고, 상반되는 의미 충돌의 긴장감을 유발하며 글로써 표현되는 아이러니적 상황과 같은 수사법을 시각화 해낸다.

대표적인 ‘데페이즈망’ 작가는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⁸⁾,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⁹⁾,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¹⁰⁾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이미지들이 어떤 낯선 방식으로 결합되는지 학자들은 그 방법들을 분류했다. ‘아이러니’를 어떤 기법으로 시각화 하는지 기법의 분류를 통해서 살펴본다.

7) 플롯(plot), 구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소설 작품에서의 '사건의 틀로, 사건이 짜여져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스토리는 이야기 줄거리 자체로서 사건의 전개만을 의미하지만, 플롯은 사건이 전개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줄거리는 아니며 오히려 인과관계의 완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 벨기에의 화가. 쉬르레알리즘 운동에 참가했고, 처음에는 키리코풍의 괴상한 물체 풍경을 그렸다. 고립된 물체 자체의 불가사의한 힘을 끄집어내는 듯한, 독특한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전후의 팝 아트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9)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에스파냐의 초현실주의 화가. S.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에 공명, 의식 속의 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자상하게 표현했다. 스스로 ‘편집광적·비판적 방법’이라 부른 그의 창작수법은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환각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10)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그리스에서 출생한 이탈리아의 화가. 형이상학적이고 몽환적인 화풍으로 초현실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를 선구로 스콜라메타피지카(Schola Metaphysica:형이상파)가 형성되어 미래파 이후의 이탈리아 화단을 풍미했다.



Fig. 1. René Magritte(1953), Golconde



Fig. 2. René Magritte(1953), The Treachery of images

Fig. 1과 Fig. 2는 르네마그리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Fig. 1은 본인의 모습을 겨울비에 투영하여 시각화하며 사회적 현상들의 아이러니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낸 작품이다. Fig. 2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림 속 글을 통해 글과 그림의 불일치적 요소를 낯선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처럼 마그리트의 작품은 ‘데페이즈망’을 통해 아이러니한 상황과 언어들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수지 개블릭(Suzi Gablik)은 마그리트 작품을 합성, 우연, 변형, 고립, 스케일, 이중이미지, 역설, 양극화[16] 이렇게 8가지로 분류 분석하였다. 이 8가지 특성을 시각적 기법과 연결시켜 Table 1로 정리해보면 ‘고립과 변형’은 형태와 크기의 변형, 이질적인 재료의 낯선 병치와 연결되고, ‘합성과 스케일’은 재료의 일상적이지 않은 배치, 스케일은 변화, 무생물이 생물로 변화하고 중첩되는 효과와 연결 된다. ‘우연과 이중이미지’는 합성과 새로운 결합, 이중의 이미지 사용, 의외의 효과와 요소 도입을 연결시킬 수 있고, ‘역설과 양극화’는 이미지의 모호함, 불확정, 모순, 낯선 조합[15]의 기법들과 연결된다.

Table 1과 같이 마그리트 작품 속 시각기법의 분류를 통해 드러난 ‘데페이즈망’에 대한 특성들을 ‘아이러니’의 종류와 연결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아이러니의 특성들을 Table 2로 정리해본다. ‘말의 아이러니’와 ‘상황의 아이러니’는 비꼼과 병치, 서술과 풍자로 그 특성

을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극적 아이러니’와 ‘일반적 아이러니’, ‘낭만주의 아이러니’로 분류되는 ‘상황의 아이러니’는 실제 의도와 반대되거나 모순의 상황, 상반되는 가치의 존재를 드러내는 상황들의 특성을 지닌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gritte's work, Visual irony technique

Characteristics of Magritte's work (Characteristics of dépaysement)	Visual irony technique
Isolation and transformation	Variation of shape and size Use of heterogeneous materials A strange juxtaposition
Compound and scale	Strange arrangement of materials changes Scale biologicalization of inanimate objects Superposition effect
Coincidence and double image	synthesis New combine Use dual images introduction of unexpected effects
Paradox and polarization	Ambiguity of images Uncertainty contradiction A strange combination

Table 2. Classification of irony, Iron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f irony	Ironic Characteristics
verbal irony	sarcasm juxtaposition Narrative and satire
situational irony	Actual intent and opposite situation A situation of contradiction A situation that reveals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values

Table 1과 Table 2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아이러니’의 특성들은 ‘데페이즈망’ 작품 속의 기법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 특성을 시각화하여 상황을 전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겹쳐지는 단어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낯설게 하기’를 통해 반대되거나 모순적 이미지와 상황들을 연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꼬아 이미지와 상황을 모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Table 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낯선 모습과 비꼼, 반대, 모순, 이질적, 병치, 변형, 모호함 등의 단어들은 아이러니의 특성과 데페이즈망의 특성이며 작품 속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시각적 아이러니로 작용하여 작품을 분석 할 수 있게 만든다.

Table 3. Visual technique elements of dépaysement, Ironic Characteristics

Visual technique elements of dépaysement	Ironic Characteristics
Variation of shape and size Use of heterogeneous materials A strange juxtaposition	sarcasm juxtaposition Narrative and satire Actual intent and opposite situation A situation of contradiction A situation that reveals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values
Strange arrangement of materials changes Scale biologicalization of inanimate objects Superposition effect	
synthesis New combine Use dual images introduction of unexpected effects	
Ambiguity of images Uncertainty contradiction A strange combination	

4. 결론

회화의 범주에 나타나는 ‘시각적 아이러니’를 해석하기 위해 미적 범주에서 아이러니의 탄생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특성적 분류를 통해 아이러니의 수사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또한 미술의 영역에서 비슷한 수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페이즈망’을 중심으로 기법을 분류하고, 시각적 효과로 나타난 ‘시각적 아이러니’를 작품 속에서 찾아 이를 해석해 보았다.

‘아이러니’는 단순한 논리로 적용되는 수사법이 아닌 말과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미적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예술 장르에 적용 가능하며 고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언어요소로 작용한다. 꼭 수학적 공식화 된 정답이 아닌, 열린 결말로 미적 감각을 풍성 하게 만들고 보는 이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함의 미학이 갖고 있는 미적 요소들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이것을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언어 뿐 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예술장르 안에서 각각의 다른 시각어로(視覺語) ‘아이러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술의 역사에서도 초현실주의의 등장으로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그들의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언어로 분석하며 고정되어있는 의식의 흐름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시각적 기법중 하나인 ‘데페이즈망’ 또한 다른 기법의 특징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의미와 내용들이 혼합되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기법을 나열하고 분류하여 분석하는

일은 작품 뿐 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 다양한 현상들을 보는 일과 같다.

데페이즈망의 ‘낮설게 하기’의 시각적 기법은 문학에서 아이러니의 수사법과 매우 유사한 것을 각각의 역사적 고찰과 특성의 선행연구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아이러니를 시각언어로 표출할 때 적절한 시각적 아이러니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작품을 더욱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작품마다 창작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시각언어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REFERENCES

- [1] Monthlyart. (1999). *World art glossary*. Seoul : Monthlyart.
- [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999). *Standard korean dictionary*.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3] J. J. Kim. (1981). Irony and style in novel. *Cogito*, 20, 25-48.
- [4] S. S. Yoon. (2004). *Irony-Der zauberberg of mann tomas*, Paju : KSI.
- [5] J. Y. Kim. (2013).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int of narration and irony in novels-focusing on attached works-*.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 [6] Y. D. Roh. (2010). The Study On The Aesthetic of Romanticism -Concerning the back ground of its thought and the aesthetic property.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1(6), 197-205.
- [7] P. U. Hohendahl. (1995).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kritik*. Seoul : Minumsa.
- [8] J. O. Lee. (2002). L' étude sur les concept d'ironie verbale, *French Studies*, 23, 283-307.
- [9] H. Y. Park. (2003). *Eine studie über die romantische ironie von friedrich schlegel*.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10] U. Eco. (2004). *Storia della bellezza*. Paju : Openbooks.
- [11] D. C. Muecke. (1986). *Irony*,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12] S. Jurgen. (1995). *Zur theorie des modernen romans*. Seoul : Moonye.
- [13] I. H. Kim. (1986). *Study of korean literature theory*. Seoul : Eulyoo.
- [14] M. S. Lee. (2014). *Movement and genre*. Naver [Online]. <https://terms.naver.com>
- [15] H. S. Jang, B. P. Hur. (2009). A Study on the

de'paysment characteristics in modern architecture -
In light of Rene Magritte -.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8(6), 96-103.

[16] S. Gablik. (2000). *Rene magritte*. Seoul : Sigongsa.

문 지 혜(Ji-Hye Moon)

[정회원]



· 2010년 2월 : 세종대학교 회화과 (미
술학사)

· 2013년 2월 : 세종대학교 회화학과(미
술학 석사)

· 201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
동과정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예술, 미술, 융합

· E-Mail : artmjh822@naver.com